

신약 역사, 문학 및 신학

## 세션 12: 루크

Ted Hildebrandt 박사의 글

### A. 누가복음 서론: 저자와 독자 [00:00-2:44]

**A: AD 결합; 00:00-12:49; 저자 및 행위 연결**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금 마가복음을 다 읽고 죄 사함과 치유, 그리고 마가복음의 인자와 메시아적 비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요한 마가는 베드로의 복음과 요한 마가와 바울을 둘러싼 갈등을 썼습니다.

저는 누가복음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누가는 새로운 주제가 될 것이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가 왕이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종이며, 누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가 완벽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많은 인간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소개하고 누가복음의 서론과 누가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누가는 우리가 말했듯이 그를 완벽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토론의 특정 지점에서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강조할 것이고, 저는 종종 우리 문화가 예수를 일종의 강화된 MLK나 초기 마하트마 간디 또는 그와 비슷한 사람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현자나 예언자로 사랑합니다. 예수의 문제는 누군가가 예수를 신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흥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호와의 증인이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신성이 문제이고 우리 문화에서는 모두가 예수를 사랑스러운 예언자로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겪는 것은 신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 1장에서 구약성경의 인용문을 읽을 때 강조하지만, 예수는 또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무시하도록 신성을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가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대체로 그는 완벽한 인간입니다.

누가가 썼다는 걸 알고 있나요? 저는 저자가 누가라는 주장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저자와 독자, 이 두 가지를 책을 제대로 읽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저자와 독자를 해석적으로 다루고 저자의 배경과 독자의 배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저자를 밀어붙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은 그것이 전달되는 독자를 밀어붙이지만, 저는 둘 다 좋아합니다. 저는 볼 수 있는 두 눈이 있습니다. 저는 저자가 있고 독자가 있으며, 둘 다와 그들 사이의 상호 작용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 나. 사도행전의 '우리' 구절들 [2:44-5:00]

누가가 이 글을 썼다고 어떻게 추측할 수 있을까요? 누가가 이 글을 썼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증명을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우리"라는 구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다면: "애닛과 엘리엇이 가게에 갔다. 그들은 쇼핑을 하러 뉴잉턴으로 갔다가 반스 앤 노블에 가서 이것저것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집에 와서 나를 데리러 왔고 우리는 댄버스로 갔다. 우리는 영화를 보러 갔다." "그들은" 이렇게 했고 "그들은" 저렇게 했고 "우리" 이렇게 했고 "우리" 저렇게 했고 거기에는 저도 포함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는 또한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그것은 "그들, 그들, 그들"에 이어 "우리"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그의 고난 후에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사람들에게 살아 계심을 보이시고 이 사람들에게 살아 계심을 많은 확실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서 그가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그를 포함합니까? 아니요, 그는 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에게 나타나지 않고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사십 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들' 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동안 '그들에게' 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것은 누가가 이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요, 그는 "그들' 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동안 '그들에게' 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이 "그들", "그들", "그들", "그들", "그런 종류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교 여행[2MJ]을 살펴보면 매우 흥미롭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약어를 사용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의미하는 2MJ라고 합니다.

#### **다. 바울의 선교 여행 [5:00-7:23]**

제가 이걸 요약하겠습니다. 너무 진부할 테고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1MJ]이 바나바와 요한 마가와 함께 키프로스를 거쳐 터키, 즉 터키의 중부 하부에 도착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시작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모든 선교 여행은 안디옥에서 시작합니다. 그들은 키프로스로 가서 터키 중부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선교 여행입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2MJ]에서 바울과 실라는 마케도니아로 가서 그리스의 아테네를 거쳐 내려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은 주로 그리스 북부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를 거쳐

내려와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보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교사는 주로 한 곳에 있습니다. 글쎄요, 마케도니아와 고린도 두 곳이에요. 그는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보내며 천막을 짓습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은 서기 51년경입니다. 그것이 대략 2차 선교 여행, 고린도에서 2년 가까이입니다. 3차 선교 여행[3MJ] 동안 그는 에베소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에베소는 터키의 해안에 있으며, 중앙 바로 아래, 중앙에서 가장 서쪽에 있습니다. 에베소 3차 선교 여행은 에베소에서 3년을 보냈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돈을 가져왔고 그는 2년 동안 감옥에 갇히면서 문제에 휘말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를 로마로 보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에서 난파선이 일어났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터키 중부에서 2MJ를 위해 고린도 1로, 그다음 3MJ를 위해 에베소로 갔고, 그런 다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고 결국 참수당했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2차 선교 여행 중이고 바울은 터키 북부로 오고 있습니다. 그는 2차 선교 여행에서 마케도니아로 오고 있으며 트로아스라는 곳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8-11절에 "그리하여 그들은 미아시아를 지나 밤에 트로아스로 내려갔습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 한 명이 나타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 “그래서 그는 터키에서 그리스 북부인 마케도니아로 건너갈 것입니다 .

#### 다. 선교 여행에서의 '우리' 에 대한 구절들 [7:23-12:49]

“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이제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트로아스에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즉시 했습니다. 우리는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럼 누가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누가는 트로아스 출신이었습니다. ” “우리”는 픽업되었으므로 우리는 이것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우리, 우리는 집으로 가는 길과 트로아스 “우리”는 픽업되었고 그들은 바울과 함께 마케도니아로 가서 “우리들”은 빌립보까지 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빌립보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케도니아의 빌립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마케도니아의 빌립이었고, 빌립보는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빌립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빌립보의 간수가 자살을 시도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보라색 장수 루디아가 거기에 있지만 누가는 빌립보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픽업되고 바울이 빌립보를 떠났을 때 갑자기 “그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누가는 트로아스에서

빌립보 마케도니아로 가서 빌립보에 머물렀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고린도로 계속 내려가고, 그것들은 모두 "그들", "그들", "그들"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거기에 남았고 정말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입니다. 사실 이것은 몇 년 후인데,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에서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등장합니다. 그는 마케도니아인들에게서 돈을 모으러 왔습니다. 마케도니아인들은 돈이 있었지만, 그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돈을 모으러 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으로 갑니다. 그가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고 갑자기 "우리"가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은 누가와 그들과 다시 합류한 것을 보여줍니다. 17장 1절. 3인칭 [그들]은 1인칭 [우리]에게 자리를 내줍니다. 이제 누가는 3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과 다시 합류합니다 . 이제 "우리"는 20장 5절에서 다시 시작하는데, 바울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20장 5절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고 바울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우리"로 거슬러 올라가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다음 누가는 바울이 감옥에 갇힐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 지역에서 문제에 휘말리고 2년 동안 감옥에 갇힙니다. 그가 2년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 누가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루크 는 바울과 함께 카이사레아에 있을 것이고 해안선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카이사르에게 호소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바울이 펠릭스 밑에서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힌 후, 페스투스 와 아그립바와 함께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려고 시도할 것이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카이사르에게 호소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카이사르에게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카이사레아에서 카이사르에게 호소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도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은 그들이 편지를 쓰고 바울을 배에 태워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루크는 분명히 그 여행을 떠났고 우리, 우리, 우리 모두 로마로 갔습니다. 이것은 선교 여행이 아니지만 그는 로마로 가고 있었고 실제로 그들은 몰타 섬에서 난파했습니다. 이탈리아 아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배를 난파했고 사도행전 27장은 고대 세계에서 난파선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 중 하나입니다. 누가는 그곳에 있었고 매우 자세하게 설명했으며 이것이 사도행전 27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거 절차를 사용하여 누구인지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모든 세부 사항을 살펴보고 싶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2차 선교 여행에서 트로아스에서 빌립보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과 3차 선교 여행에서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 로마로 가는 난파선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에 갔고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은 누가입니다. 따라서 제거를 통해 요한 마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1차 선교 여행에서 그만두었고 2차 여행에는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면 바나바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항해에 없었던 실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모든 시간 동안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그 사람은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에 도달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 누가는, 그런데, 우리는 그가 거대한 누가복음을 썼다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방금 마가복음을 읽었고, 방금 수업에서 마가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은 1100절이 넘습니다. 사도행전도 28장으로, 적어도 신약성서에서는 가장 긴 책 중 하나입니다. 마태복음은 28장입니다. 사도행전도 28장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3부작이 아니라 2부작처럼 함께 나오는 두 권의 책과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고 사도행전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은

신약성서의 28%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신약성서의 28%를 썼고, 그것은 신약성서의 거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대단한 일입니다.

#### F. 루크의 배경 - 의사 [12:49-16:34]

B: Combine FG; 12:49-21:15; Doctor Luke a Gentile

이제 누가의 배경: 누가에 대한 질문은 누가가 의사였고, 우리는 누가를 의사로 보여주는 측면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1900년대 후반에 호바트라는 사람이 자신의 어휘로 그가 의사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대 세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열을 나타내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낮은 열과 높은 열이 있었고,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높은 열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높은" 열은 의사의 설명이며, 당시 의사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사람들은 나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있다고 말하지 않고 나병을 의사로 묘사합니다. 그는 질병을 설명하므로 "사람들은 나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호바트와 다른 사람들은 누가가 병든 사람을 묘사하는 방식이 의사가 묘사하는 방식이며 거기에 약간의 진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루크가 매우

발달된 어휘를 사용한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hapax legomena* 라고 불리는 800개의 어휘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신약성서에 한 번만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의 어휘가 매우 발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사를 본 적이 있다면 의사들은 매우 발달된 어휘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라틴어 단어는 어떤 약을 투여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 딸은 지금 손에 든 기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입력하면 약에 대한 긴 단어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냥 클릭하면 CVS로 전송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러한 이름을 외우거나 혼동하거나 그런 종류의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루크는 발달된 어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 그들이 요세푸스를 연구한 것은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또한 광범위한 어휘력을 가지고 있었고 사물을 설명할 때 많은 의학 용어를 사용했지만 요세푸스는 역사가였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발달된 어휘력을 가지고 특정 의학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들이 의사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요세푸스는 역사가였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의사인 듯하지만 어휘력만으로 증명할 수는 없고 그것이 의학 언어 논쟁입니다. 저는 그것에 너무 많은 신뢰를 두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학 용어를 사용하여 사물을 언급할 수 있으므로 그 주장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요세푸스는 앞서 언급했듯이 서기 40년에서 서기 100년 사이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인 수치이지만 예수 직후이지만 요한과 제자들이 신약성경을 쓴 시대입니다. 요세푸스는 유대인 역사가로 *유대인의 고대*와 그 시기의 다른 문서를 쓰고 있는데 정말 흥미롭습니다.

여기 제게 큰 것이 있습니다. 콜로새서 4:14, 바울은 그를 “사랑하는 의사 루가”라고 불렀습니다. 고대 세계의 의사에 대해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미국에서 초기에 사용되었던 의사의 기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의 의사는 당시의 의사와는 매우, 매우, 다른 기구, 매우 다른 시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의사의 교육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당시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바울이 항상 구타당하고 있었고,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었지만 의사가 함께 있다면 매우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사를 시작하려면 회계사가 필요하고, 선교사가 되어 항상 구타당할 것이라면 함께 여행하는 의사가 있으면 좋기 때문에 바울은 콜로새서 4:14에서 루가를 “사랑하는 의사”라고 부릅니다.

#### G. 누가: 이방인인가 유대인인가? [16:34-21:15]

그가 이방인에게는 흥미롭게 보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닌 것 같고 이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 일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아람어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를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아람어로 말씀하셨던 탈리 *타 쿨* (*talitha koum*)이나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타니* (*eloi eloi lama sabacthani*)와 같은 말 중 일부는 예수님의 입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트로아스의 로마 시민이라면 그는 그리스-로마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아마도 유대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람어를 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2년을 살았지만 그런 것들을 배웠고, 똑똑한 사람이라면, 그에게 2년을 주었을 테지만, 그런 외국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아람어를 조금 배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는 베들레헴 밖에서 1년 동안 교회에 다녔을 때 아람어를 조금 배웠고,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2년 동안 거기에 있었으므로 그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이름은 책에서도 피했고 "사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겐세마네도 언급되지 않았고 "호산나"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모두가 "호산나"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지만 그것은 모두 아람어 구절이고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지만, 이것들은 단지 작은 지표일 뿐이지만, 그가 유대인 원주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바울이 콜로새서 4장 10절에서 그의 친구들을 나열했을 때 이방인들과 함께 그룹화되었고, 누가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과 함께 그룹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이방인들과 함께 그룹화되어 있는 듯합니다. 그것은 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가장 강력한 주장 중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19에서 유다는 나가서 목을 매달고 돈을 대제사장에게 돌려주고 대제사장은 아겔다마라는 밭을 사는데 거기에 "아겔다마는 그들의 언어로 피발이라는 뜻입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그들의 언어로"라고 말할 때 그는 그 언어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언어"는 그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의 언어는 아마도 아람어가 아닌 그리스어와 라틴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언어"로 그는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일 것입니다.

그는 위치도 설명하는데, 1장 26절에서 유대인이라면 미국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고, 누군가가 LA라고 말하면 LA가 어디인지, 라스베이거스가 어디인지, 댈러스가 어디인지, 마이애미, 뉴욕, 보스턴, 나이아가라 폭포가 어디인지, 미니애폴리스나 시카고와 같은 미국의 주요 지역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흔한 일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면

도시나 장소를 모를 수도 있고, 한두 개는 알 수도 있지만, 그런 한두 개 장소에만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여섯째 달에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보내셨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이제 그는 갈릴리에 있는 이 동네를 추가합니다. 모든 유대인은 나사렛이 갈릴리에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에게 편지를 쓰고 그가 직접 들었다면 설명에 “갈릴리의 동네”라고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위치를 설명합니다. 영어: 당신이 원주민이라면 구약성경 인용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40개의 인용문이 있고 마태복음에는 구약성경에 영향을 준 모든 종류의 것들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다” 또는 “너희가 옛날에 들은 바가 있다”와 같은 것들입니다. 누가는 그런 것들을 모두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구약성경에서 인용문을 거의 남기지 않았고 구약성경에서 인용문이 나올 때는 대부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4장 4절, 4장 8절, 4장 12절은 대부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구약성경 인용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루크를 이방인으로 잡았습니다. 루크는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고, 아마도 터키 북서쪽, 트로이가 있는 곳인 트로아스에서 온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에서 트로이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트로아스는 터키 북서쪽 지역에 있습니다.

## 8.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관련이 있는가? [21:15-27:17]

C: H를 합친 것; 21:15-27:17;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제 사도행전과 누가 복음은 관련이 있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으로 작업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관련이 있고, 이것들은 정말 정말 중요한 구절들이고, 다시 언급할 것이지만, 누가복음 1:1-4를 읽어보겠습니다. 청중은 누구입니까? 누가는 이방인 의사로, 분명히 매우 잘 교육받았고, 누가복음의 구문, 어휘, 문법은 매우 정교합니다. 저는 신약성경에서 한 번 사용된 800개의 *하팍스 레고메나* 단어를 발견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매우 드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의 글쓰기 스타일 면에서 매우 정교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 많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총만해진 일들을 처음 목격하고 말씀의 종들이 전해준 대로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자세히 조사하였으므로, 데오빌로 각하게 순서대로 기록하여 각하게 가르치신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얻은 것은 루크, 네, 터키 북부의 이방인 의사입니다. 교부 중 한 명이 그가 시리아의 안티오크 출신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저자가 있는 그 지역의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그는 실제로 자신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지 나열하고 이 수신자를 가장 훌륭한 테오피로라고 부릅니다. 이제 흥미로운 점은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동안 그가 “가장 훌륭한 테오피로”라고 말할 때, 이 사람에게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보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테오피로가 지위 있는 사람이라고 믿을 것입니다. 제가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누가 가장 훌륭한 테오피로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까? 그는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었고, 그는 카이사르의 법정에서 로마에 호소했고,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누가 가장 뛰어난 테오피로에게 가장 뛰어난 테오피로에게 먼저 예수님과 그곳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알리라고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행전이 12장이나 13장 이후에 바울 에 대한 내용이 많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두 권의 책을 쓴 것은 가장 뛰어난 테오피로가 힘을 실어 바울을 감옥에서 꺼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은 바울이 죽임을 당하고 처형당하지 않도록 감옥에서 꺼내도록 돕기 위해 쓰여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가장 뛰어난

데오필로에게 편지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이제 가장 뛰어난 테오필루스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면 이 단어를 분해하면 이 단어에는 *테오* 신학이 있는데, *테오*는 신을 의미합니다. *필루스*는 필라델피아의 사랑과 같은 사랑을 의미하고, *필류*는 형제애와 같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필류*는 사랑을 의미하고 *아델포스*는 형제애를 의미합니다. 필라델피아는 "형제애"의 도시이거나 적어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테오필루스는 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일종의 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을 사랑하는 사람, 가장 뛰어난 신을 사랑하는 사람. 그는 편지를 쓰는 사람들의 성격을 묘사하고 있으며, 그들은 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장 뛰어난 테오필루스가 그가 편지를 쓰는 사람의 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바울이 누구인지 말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사실을 알았으니, 카이사르의 법정에서 바울을 돕고 감옥에서 꺼내라." 신약성경의 28%입니다. 와, 여기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많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을 우리에게 전해진 대로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는 여기서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훌륭한 데오빌로, 이제 이것을 제기하는 요점은 "당신이 배운 것의 확실성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의 요점은 이것을 사도행전 1장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그는 “내가 전에 쓴 책에서”라고 말하며, 그가 전에 쓴 책을 가지고 있다고 나열합니다. “내가 전에 쓴 책에서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의 시작 부분에 언급되고 데오빌로는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에 언급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내가 전에 쓴 책에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는 이런 연관성이 있는데, 둘 다 누가복음 1장과 사도행전 1장에 의해 가장 뛰어난 데오빌로에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두 권의 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전자의 책은 앞뒤로 오가며, 이것은 누가의 책을 쓴 익명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가 가장 뛰어난 테오피루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수신자는 “나”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수신자, 테오피루스는 “나”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휘와 스타일, 매우, 매우 발달된 어휘, 구문적으로 매우 정교한 작가라고 말했습니다.

## I. 누가는 어떤 권리로 복음서를 쓸 수 있었는가? [27:17-29:49]

D: IL을 합치다; 27:17-40:23; 누가의 자료

이제 , 누가복음 1:1-4에 관해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이고 유대인도 아니고 사도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어떤 근거로 복음서를 썼을까요?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할까요? 우리는 초기 교회에서 마태가 사도이고 마가는 베드로의 권위 아래 베드로의 복음서를 썼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은 누가 요한을 썼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아마도 세베대의 아들 요한, 다시 사도이고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신약의 대부분을 썼고, 예수의 형제 야고보, 예수의 형제 유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나 사도와 관련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는 어떻게 영감을 받았고 어떻게 글을 쓰는 과정에 들어갔을까요? 누가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2MJ]에서 기독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기원후 51년, 예수가 죽은 지 약 20년 후입니다. 누가는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예수를 만난 적이 없고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는 자료를 간접적으로 얻었습니다. 누가는 어떤 근거로 성령에 근거하여 글을 썼을까요? 누가가 유대인이 아니었고,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를 직접 본 목격자도 아니었다면, 그는 어떻게

복음서를 쓸 수 있었을까요? 그가 직접 그곳에 있지 않았고 알려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음서를 쓸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마태처럼 목격자가 아니었던 사람에게 영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다루는 것입니다. 마태는 목격자였고 이러한 일들을 보고 이를 확인하고 알 수 있었습니다. 누가는 역사적 연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영감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감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16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지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21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주어졌습니다. 영감은 역사적 연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누가는 신약의 역사가인 듯하고 역사적 연구를 하는 듯합니다. 영감, 즉 성경의 하나님의 호흡과 성경의 역사적 연구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 J. 누가복음에 대한 영감의 과정: 구절 [29:49-34:00]

누가복음 1:1-4는 성경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제공하지만, 신약성서에서 가장 좋은 부분은 그가 실제로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측면에서 정말 중요하고, 저는 여기에 이  
 두문자어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저는 또한 이 두문자어를 사용해서  
 제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F로 철자된 "구", FRASES를 저는  
 누가복음 1:1-4에 비추어 이 부분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는  
 처음부터 누가 자신이 목격자가 아니라고 말한다는 것을 압니다.  
 누가는 "많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려고  
 착수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목격자로부터 일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대로입니다. 그는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므로 우선, 이것은  
 직접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누가는 출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를 알지 못했고,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직접적인 정보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 자료는 목격자들로부터 그에게 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는  
 직접적인 목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F"는 그가 연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연구를 합니다. 이 자료는 그의 역사적  
 연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의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역사적 연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출처로 돌아갈 것입니다  
 .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진" 사람들로부터  
 얻었다고 말합니다 . 그래서 그는 전통의 대열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정보를 전하고 있고, 그는 목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연구를 하고

그것을 모아서 많은 기록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크는 이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계산을 하기로 했다” 고 말합니다.

그는 많은 계산을 알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죠, 누가는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

모두가 나를 버렸습니다. 누가는 나와 함께 있습니다. 마가를 데려와서 데려오세요.” 그러니까 누가는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난파선 사고를 기억하세요. 그는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갔습니다. 요한

마가도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 있었고, 이것은 그 당시인 서기 65, 64

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누가가 거기에 있었고 요한 마가와

베드로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가는 여기서 “많은 사람이 착수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착수해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을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는 예수에 대한 다른 문서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다른 기록들도 알고 있으니 마가, 베드로,

다른 사람들의 자료를 끌어왔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일들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 말씀의 종들에게서

전해진 대로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조사했으므로(그것이 조사입니다) 가장 뛰어난 데오필로에게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정보를 살펴보고 정리하려고 노력했고 가장 뛰어난 데오필로에게 순서대로 기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저는 이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어떻게 글을 쓰는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저 적어서 펜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여러 가지를 넣을 것입니다. 기록이 많습니다. 저는 많은 출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3x5 카드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논문을 쓸 것이고, 그는 자료를 살펴보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MS OneNote나 그런 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논문을 쓰기 전에 노트를 정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으므로 그는 체계적이고 정리된 계정을 쓸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 K. 목격자 증언 [34:00-36:51]

루크는 목격자를 예리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목격자였던 사람들로부터 전해진 자료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역사가의 표식입니다. 그는 목격자로부터 무언가를 얻습니다.

목격자들이 같은 이야기에 대해 서로 다른 기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누가 이 말을 했는지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도로변에 서 있던 한 여성이 버스에 치여 사망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목격자 진술이고 두 명의 목격자가 있을 것입니다. 두 명의 목격자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두 목격자 진술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변에 서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명의 목격자입니다. 첫 번째 목격자: 도로변에 서 있는 여성 버스에 치여 부상을 입었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았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녀는 버스에 치여 부상을 입었지만 사망하지는 않았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목격자입니다. 두 번째 목격자: 여성은 차에서 떨어져 즉사했습니다. 두 목격자가 매우 다른 두 가지 보고를 합니다. 이야기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 사람은 그녀가 치여 즉사했다고 말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녀가 치여 즉사하지 않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말합니다. 글쎄요, 진짜 이야기는 그 여성이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었는데, 버스에 치여 중상을 입었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녀를 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가던 중 그의 차에 치여 그녀가 차에서 떨어져 즉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매우 다른 이야기와 매우 다른 목격자 진술을 볼 수 있습니다. 루크는 훌륭한 역사가였고, 그는 목격자 진술을 알고 있었고, 그것은 훌륭한 역사가의 특징입니다.

진술이 충돌하더라도 목격자 진술로 돌아가려고 노력하세요. 그는 진술을 모아서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출처가 목격자인지 예리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직접 목격자는 아니지만, 그 사실을 미리 인정합니다. 여기 에는 약간의 정직함이 있습니다. 그는 다른 많은 진술의 출처를 사용하므로 출처를 사용하고 다양한 출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 **ㄴ. 누가는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가?바울, 실라, 마가 [36:51-40:23]**

사실 , 제가 다음으로 하고 싶은 일은 일부 출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출처일까요? 그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으니 어디서 정보를 얻었을까요? 그는 마가에 대해 알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가가 먼저 쓰여졌고 마태와 누가가 그것을 인용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추첨이 될까요? 마태가 마태에게 마가를 사용했고 마태가 예수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는 직접 알고 마가 출처의 일부를 조건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싶은 것을 말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는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마태와는 다른 방식으로 마가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는 출처를 사용합니다.

누가 는 어디서 정보를 얻었을까요? 그는 예수를 직접 알지 못했지만 사도였던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났고 예수가 와서 바울을 만나 그를 쓰러뜨리고 바울은 예수를 알고 글을 썼습니다. 그는 실제로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등과 같은 신약 성경의 많은 서신을 썼습니다. 실라는 예수를 알고 예루살렘의 원래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고 실라는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실라를 알고 있었고 실라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실라는 그런 종류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2차 선교 여행과 여기에 나열되지 않은 3차 선교 여행 동안 바울은 바울, 실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행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2년 동안 이스라엘에 갔고 이것은 아마도 누가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2년 동안 있는 동안 이 책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한 때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을 것이고, 친구가 감옥에 있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요? 감옥에 있는 그를 매일 볼 수 없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요? 당신은 그냥 놓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가 많은 연구를 한 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있으므로 예루살렘에 갈 수 있고, 갈릴리에 갈 수 있고, 다양한 곳에 가서 배우고 연구할 수 있으며, 그는 그것을 할 시간이 2년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앉아 있고 거기서는 별로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런 종류의 일이 없으므로 그는 이스라엘에서 2년을 보내며, 그것은 그가 어떤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베드로와 마가는, 우리가 이전에 언급했듯이, 같은 시기에 로마에 있었고, 디모데후서 4:11, 우리는 실제로 진술을 얻습니다. 디모데후서 4:11을 읽어 봅시다.

바울도 로마에 있으므로, 베드로, 마가, 바울이 로마에 있습니다.

누가도 거기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누가가 나와 함께 있습니다. 마가를 데려와서 데리고 오십시오. 그는 내 사역에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올 때 내 겹옷을 가져오십시오. 나는 트로아에 있는 카르보에게 두고 온 것과 내 두루마리, 특히 양피지를 가져왔습니다. 당신은 아이패드 없었기 때문에 그는 양피지와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요구했습니다. 디모데후서의 바울은 자신의 죽음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는 "누가가 나와 함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 로마에 있고 베드로와 마가가 그 직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마가가 실제로 베드로가 바울보다 먼저 죽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감옥에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스페인에 가기 위해 잠시 풀려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유의 기간, 그리고 그는 돌아와서 바울이 아마도 서기 68년경에 죽고 베드로는 서기 65년 전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보다 조금 먼저입니다.

### M. 루크가 마리아를 인터뷰하다 [40:23-46:21]

E: MN을 결합합니다. 40:23-51:33; 누가복음의 출처인 마리아,  
**날짜**

이건 제가 잠깐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예요, 마리아.  
 마가가 베드로의 복음을 썼다면, 마가가 베드로의 복음 아래에 썼다면,  
 누가는 마리아에 대한 자료를 많이 썼을 겁니다. 그래서 제 추측은  
 누가가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관해 인터뷰를 했다는 점에서  
 마리아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에서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들을 몇 개 읽어보고, 끌어내서 예수 이야기에서  
 마리아 쪽에 대해 알아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29 "마리아는 그의  
 말에 크게 놀라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마리아는 그의 말에 매우  
 놀라서 "이게 무슨 인사일까 하고 의아해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이미 읽은 것과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마태복음  
 에서 누구에게 와서 말합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와서 말을 건넨 것은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해서 이혼하려고 애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와, 이게 뭐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리아와 비밀리에 이혼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에게 왔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29에서 마리아는 “천사의 말씀(천사의 말씀)에 크게 놀라서 이게 무슨 인사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누가는 마리아의 편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19에서 목동들이 예수의 탄생을 보러 왔습니다 . 그런데 마태복음에 목동들이 예수의 탄생을 보러 왔을까요? 목동들이 왜 왔을까요? 지금 크리스마스 구유를 본 적이 있나요? 크리스마스 구유에는 동방박사들이 한 쪽에 있고 목동들이 다른 쪽에 있고 아기 예수와 동물들이 있고 마리아와 요셉이 가운데에 있죠? 그러니까 목동들과 동방박사들이 있고 아기 예수가 동물들과 함께 구유에 있는 거죠. 사실, 진실은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분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2년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롯과 관련해서 동방박사들이 2년 후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동들은 오래 전에 떠났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오늘 베들레헴 마을로 가라. 왕이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가 태어나고 유대 베들레헴에서 천사들이 “호산나” 또는 그런 소리로 내려와서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는 목동들을 기록했습니다. 목동들은 아마도 바로 그 직후, 그리스도가 태어난 직후 , 베들레헴 들판에서 바로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그것을 이어받았고 아마도 마리아일 것이고 목동들이 예수의 탄생을 보러 온

후에 누가는 다른 곳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간직하고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했다”고 말하는 것을 주목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마리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이제 누가 루크가 마리아를 인터뷰했다면 그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인데,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그녀의 마음 에 소중히 간직했고 그것은 우리에게 마리아의 내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를 축복한 시므온. 시므온,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2장 33절입니다. 시므온은 그 노인이고 그 노인은 아기 예수를 들어올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므온, 네가 하나님의 기름부음받은 자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시므온, 너는 그 사람이다. 너는 예수를 볼 것이다. 다윗의 아들을 볼 것이다. 너는 죽기 전에 모든 사람이 보기를 바라는 메시아를 볼 것이다. 시므온.” 이것은 이 노인이 아기 예수를 들어올려 성전에서 축복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시므온, 이 노인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것을 볼 것이다.”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이를 성전에 데려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에 대한 소문에 놀랐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기가 시므온일 때에도 시므온이 그를 들어올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시므온을 보고 그들의 아이 예수에 대한 놀라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에 대한 소문에 놀랐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요셉은 일찍 죽은 듯하지만 예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는 별로 읽지 못했습니다. 탄생에 대한 이야기 후에는 오래 전에 사라진 듯하지만 여기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소문에 놀랐습니다. 2장 33절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의 마지막은 2장 51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순종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사렛으로 갔고 그는 그들에게 순종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하였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졌습니다.”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셨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입으셨습니다.” 나사렛 초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알았을까요? 예수의 어머니. 그는 어머니께 순종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제 아내와 그녀의 자녀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녀는 돌아가서 이 모든 유아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유아가 어떻게 젖을 먹었는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어린 시절에 대해요. 제 아내는 이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우리 가족이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정말 좋은 순간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었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어쨌든 어머니가 이 모든 초기 이야기를 기억할 것이고, 그래서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보게 되는데, 성경에서 예수에 대한 초기 이야기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누가는 제 생각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실제로 마리아를 인터뷰하고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려준 것 같습니다.

#### **ㄴ. 누가복음은 언제 기록되었는가?[46:21-51:33]**

바울이 예루살렘과 카이사레아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루가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을 인터뷰하러 다녔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의 복음서, 마리아의 이야기는 대부분 사람들이 서기 65년 이전에 말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여전히 첫 번째 투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잠시 풀려난 다음 두 번째 투옥을 위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디모데후서 4장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가 풀려날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사도행전이 바울을 감옥에서 꺼내기 위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가복음에서 시작하여 사도행전으로 계속되는 가장 뛰어난 데오필로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필로가 들어가서 바울의 사건을 돕고 그를

감옥에서 꺼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서기 68년경에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일찍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옥에 다시 들어가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입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베드로는 예수처럼 죽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매우 잔인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으므로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터키 동부의 타르수스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었고 그의 목을 베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목이 잘렸을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책은 언제 쓰여졌을까요? 누가 복음 에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언급이 있는데, 가능하다면 21장부터 20절까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그들이 시대의 끝에 대해 이야기하는 담화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보면" 이것은 21장 20절입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되는 것을 보면 그 황폐함이 가까운 줄을 알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은 언제일까요? 디도는 서기 70년에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날짜입니다. 두 번째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서기 70년에 디도는 예루살렘을 쓸어버리고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모든 돌을 무너뜨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길을 잃다에 실제로 그런 바위들이 있는데, 남쪽 벽 발굴로 가서 바위를 볼 수 있습니다. 무너진 두 번째 성전의 바위와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면 황폐함이 가까웠음을 알 것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 시골에 있는 자들은 성[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는 기록된 모든 것의 징벌과 성취의 때이기 때문이다 . 그 날에 임신한 여자와 젖먹이는 여자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는가. 그 땅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 백성에게 진노가 내려 칼에 쓰러지고 모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다 차기까지 모든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이런 종류의 종말론적 묘사와 서기 70년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파괴가 있습니다. 당시 비평가들은 예수가 예언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예언은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vaticinium post eventum* 이후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기본적으로 비평가들이 예수가 미래를 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평가들은 두 가지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기적; 예수는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과학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기적과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없어져야 합니다.

· 저는 지금 모더니즘, 즉 19세기/20세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지금 은 포스트모던으로 접어들어 기적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20 세기에는 기적이 없었고 미리 예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복음의 날짜를 서기 70년 이후로 정해야 합니다. "누가는 예수가 예루살렘의 파괴를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 아니, 서기 70년에 바울은 죽었고, 오래 전에 사라졌고, 그가 처음으로 이 자유 기간을 얻었을 때 감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감옥에 있었고 서기 68년에 죽었습니다. 바울은 죽은 지 2년이 되었으니 너무 늦었습니다. 당신은 가장 훌륭한 데오필루스에게 편지를 써서 "이봐, 바울은 죽은 사람이야. 그가 죽은 지 2년이 지난 후에 그를 물어주려고 뭐할 거야?"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물론 마가복음 다음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다시 서기 7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입니다.

## 0.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51:33-54:14]

F: 0Q를 합치다; 51:33-62:06 끝; 누가복음의 성령

흥미로운 점은 누가복음에서 로마의 시간 틀에 책을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전 세계에 호적을 하라는 칙령을 내렸다."라고 말하면서 로마의 시간 틀에 책을 설정합니다. 그는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식별하는데, 이는 우리에게 매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아우구스투스를 알고 있으므로 그가 아우구스투스 황제라고 말할 때, 그는 그리스도의 삶을 로마의 더 큰 주제인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것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이었다."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시리아 총독인 퀴리니우스가 있고, 2장 1절에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sup>1</sup>와 퀴리니우스라는 두 가지를 다루게 됩니다. 3장 1절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15년에 ·" 정말 도움이 됩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15년에 ·" 우리는 카이사르의 로마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의 15년,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투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을 때, 본투스 빌라도가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고, 본투스 빌라도가 예수가 사형을 선고받았을 때 거기에 있어서 손을 씻을 사람이었다는 외부 자료를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그의 동생 빌립은

대제사장 시절에 페레아와 트라가니투스의 분봉왕이었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으므로 카이사르들의 목록이 있고, 본투스 빌라도가 총독이고, 헤롯 안티파스가 빌립이라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으므로 이 모든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누가복음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누가는 훌륭한 역사가이고 우리가 외부 세계와의 모든 연결을 발견할 수 있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본투스 빌라도, 가야바, 빌립 등의 관점에서 예수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누가는 정말 도움이 됩니다. 누가는 역사가이고, 데오필루스는 공동체 또는 바울의 사건을 돕는 사람입니다. 데오필루스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인다면, 누가는 넓은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광범위한 진술입니다. 저는 그것이 아마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는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풀어주기 위해 재판관 받기 전인 기원후 65년 이전에 바울의 사건을 돕기 위해 데오필루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P. 누가복음서에 나타난 성령-세례자 요한 [54:14-57:01]

이제 전환하고 싶은데, 누가복음의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그 특징 중 하나를 다루고 싶고, 이 엉뚱한 두문자어를 다시

사용할 겁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방식은 HCDSPPP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사회 과학을 위한 통계 프로그램인 spss에서 일한다면, spss를 기억하세요. HHCD이고 SPPPP인데, 이것이 루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두문자어에 관한 한 친절합니다. 이것을 살펴보죠. 루가는 신약에서 성령의 저자인 듯합니다. 그는 성령에 대해 많이 언급합니다. 제가 사도행전이라고 말하자마자, 제가 사도행전 2장이라고 말하자마자, 여기 있는 많은 학생들이. 오순절 카리스마는 사도행전 2장이 성령의 임함, 방언의 말씀, 사도행전 2장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이라는 음악 그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누가복음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내려오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십니다. 그는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십니다. 그가 올라가실 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그것은 오순절에 있고 오순절의 모든 경험은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루가 복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루가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내려오는 것에 대해 기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어떨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루가는 누가복음의 주요 인물들에게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세례자 요한에게 성령이 내려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에 대한

누가복음 1:15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므로 포도주나 독한 술을 결코 마시지 아니할 것이요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라.” 다시 말해서, 그는 포도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실인인 듯합니다. 민수기 6장을 기억하십니까? 민수기는 나실인에 대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면 충만해질 것이요, 포도주로 충만해지는 대신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 꽤 깔끔합니다.

#### **Q. 누가복음에 나오는 성령-사가랴, 마리아, 시므온, 예수**

[57:01-62:06]

이제 다른 사람, 사가랴에게로 넘어가면, 그는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이고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언했다고 합니다. 여기 사가랴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종류의 제사장인 듯합니다 .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이 와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 그래서 그는 성령에 의해 예언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언입니다.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런데, 방금 누가가 역사적 연구를

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영감의 과정이 역사적 연구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답은 “예”입니다. “영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령이 내려와 누군가의 귀에 속삭이는 줄 알았습니다. 펜을 들고 이렇게 쓰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저자는 영이 그의 귀에 받아쓰는 구술 이론인 서기관과 같았습니다. 아니요, 누가는 역사적 연구를 하고 있고 그것은 영감 과정의 일부입니다. 자카리아는 여기서 예언하고 1장 35절은 누구일까요? 이것은 마리아의 복음이고 마리아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처녀입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당신에게 내리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당신을 덮으실 것이니, 태어날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입니다. 성령이 마리아에게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성령을 받았고, 그녀에게 내려왔고, 그것은 그녀가 처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설명합니다. 마리아, “성령이 너에게 내려올 것이다.” 시므온, 내 친구를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노인이었으며 성령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 이전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성령이 그에게 내려왔고 성령께서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시므온은 “이제 떠나라” *Nunc dimittis* “이제 당신의 종을 떠나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므온의 아름다운 진술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내려와서 미리 이런 것들을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자리에 계셨고 물론 예수님 없이는 이 부분을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다른 복음서 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요단 강에서 돌아오시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고 그 후에 배가 고프셨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돌아오실 때의 누가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십니다. 그는 요단 강에서 돌아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누가복음은 사도행전 2장을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이 오순절에 내려오신 엄청난 구절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성령의 주제를 이어받았습니다.

사실, 아마 지금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가 인간이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누가는 그리스도가

완벽한 인간이신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은 그것을 탐구하고 싶은데,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으로 보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듯이 그의 인간성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그리스도가 화를 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화를 내고 실망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가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얻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인간성에 대해 탐구하고 싶지만, 시므온이 성령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뵈어요.”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는 “이제 떠날 수 있어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Nunc Dimittis*는 “이제 떠나라”는 뜻이고, 이 부분을 마무리하기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제 떠나라”라고 말할 수 있고, 떠나서 다음 시간에는 누가복음을 다시 시작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lex Carnes가 필사함  
Ben Bowden 편집,  
Ted Hildebrandt 편집, Rough 편집